

## 벤처산업협회 상반기 수출 5천만 달러 지원

-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통한 상시중개 지원
- 투자도 800만 달러 유치, 지부도 6곳 늘려 총 35개로 확대
- 인케,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디딤돌로 자리매김

협회(공동회장 백종진, 서승모) 산하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의장 홍병철)는 2008년도 상반기 중 상시중개사업을 펼쳐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지원, 800만 달러 투자유치, 국내외 합작법인설립 4건 지원 등의 실적을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수출계약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예상할 때 올해 총 2억 달러 정도의 수출지원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첨단산업분야 한인기업인과 국내 벤처기업인간 연합체로 지난 2000년 출범한 '인케'는 상반기 중국내기업 진출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상해(의장 김영완)와 심천(의장 강희방)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인도 방갈로르(의장 정현경) 등에 총 6개 지부를 설치, 인케는 현재 지구촌 24개국에 35개 지부를 갖추게 되었다.

상반기 실적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인케가 설치한 벤처갤러리를 통한 수출지원이다. 현재 러시아(모스크바), 사우디아라비아(젯타), 일본(후쿠오카)에 운영 중인 코리아 벤처갤러리-해외상설마케팅오피스'를 통해 1천4백만 달러를 수출실적을 올렸다. 모스크바 벤처갤러리를 통해 소개된 코디엔터내셔널과 현대유비스 등의 한국산 내비게이션은 러시아시장으로 약 5백만 달러가 수출되었고, 젯타 갤러리를 통해서도 한국 엑센의 USB 드라이브, 코디콤의 DVR, 루벤스 카페트, 신일프레임, 우리벽지 등 건축·감재업체 등이 6백만 달러 이상의 계약실적을 거뒀다. 올 2월 문을 연 후쿠오카 갤러리는 DVR과 적외선 감지기 등의 아이템이 입점하여 현지 유력비이어와 계약사 단계에 있다.

지부를 통한 지원 실적 가운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지부(의장 오동희)의 활약이 눈에 띈다. 아르헨티나 지부는 휴대폰 영상 콘텐츠 공급을 위한 2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부(의장 성백무)의 활약도 주목된다. 인도네시아 주 방송사업자와 가계약을 체결한 한국형 T-DMB의 인도네시아 적용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의 주파수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1차 계약금액은 7백만 달러이고 프로젝트 총 계약금액은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뉴델라지부(의장 김원철)는 한국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현지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약 3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예상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주요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리적, 시간적 한계로 국내 벤처기업의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남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중 브라질 상파울로에 벤처갤러리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백종진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지원사업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는 시장을 넓혀가는 차원의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연말까지 지부를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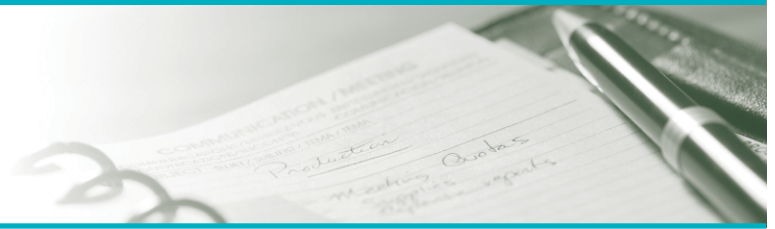


##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과 '벤처업계 간담회' 가져

협회는 협회 소속 벤처기업 대표들과 함께 8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과 '벤처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벤처업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졌다. 이윤호 장관은 업계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들을 독려하는 한편, 지식경제부의 정책 역점 분야인 기술융합 및 뉴IT 전략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에 벤처업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백종진 회장, 서승모 회장을 비롯해 정준 שלי테크 대표, 최규옥 오스템플랜트 대표, 신원호 티엔텍 대표, 장영규 코리아퍼스텍 대표,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정화 벤처산업연구원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업계의 현황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다.



## “중소·벤처산업 마케팅 발전 위해 힘 모았다” 벤처마케팅위원회(V.M.C) 8월 14일 창립 총회 개최

- 유진로봇, 스타넥스, 휴먼메디텍, 이침정보기술 등 116개사 발기인으로 참여
-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각종 세미나, 교육,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 전개할터

협회는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강화를 위하여 벤처마케팅위원회(Venture Marketing Commission, 약칭 V.M.C)를 발족, 14일 오후 6시 벤처산업협회 8층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금룡 대표를 선임했다.

협회는 올해 5월부터 기업 마케팅 관계자들의 준비 모임 이후 약 세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벤처마케팅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14일 창립총회에서는 위원회 명칭과 정관을 확정하고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 이루어졌다.

향후 2년간 벤처마케팅위원회를 이끌어갈 초대 위원장으로는 옥션 전 대표 이사를 역임하고 해외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유통에 정통한 KR얼라이언스 이금룡 대표가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고문으로는 벤처산업협회 전대열 부회장, 감사로는 가야컨설팅그룹 김경모 대표가 각각 선임되었다. 부위원장으로는 엔티에이징의 양일승 대표, 각 분과 위원으로는 링링커뮤니케이션의 서영석 대표, 돌집이커뮤니케이션 이대성 대표, 노비팩스 모바일 조익현 이사, K.ID 어스사 에이츠 주미정 대표, 스페이스링크 정인석 팀장이 선임되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50개사 대표들은 벤처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벤처산업진흥을 꾀함으로써 건전하고 창의적인 벤처문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위원회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였다. 또한 향후 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 ▶ 멘토-멘티 사업 ▶ 마케팅 관련 연구 사업 및 자료발간 ▶ 비즈니스전문 마케팅 세미나 및 행사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금룡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그동안 벤처기업이 기술 위주로 성장하였다면 이제는 고객의 호응을 받는 마케팅을 강화하여 기술과 마케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며 “앞으로 마케팅 전문가 위원회가 중소기업 마케팅역량강화지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벤처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회원사들의 마케팅 협력을 이끌어내고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벤처산업과 벤처마케팅위원회의 성장에 초대 위원장으로서 공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벤처 비전공유의 장, 2008 벤처CEO Summer Forum 개최

협회는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인천시 영종도 소재의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호텔에서 ‘2008 벤처CEO Summer Forum’을 개최하였다. 특히 올 여름포럼은 협회가 한국IT기업연합회와의 통합 이후 벤처산업 발전의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공유와 회원사 CEO들의 네트워크 강화의 장으로 치러졌다.

포럼의 공식행사로는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이 변화와 소통을 주제로 특강 및 참가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한편,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이자 협회 초대 회장인 이민화 이사장의 ‘벤처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벤처기업 CEO의 윤리적 리더십 고양을 위해 ‘벤처 윤리경영의 의의 및 사례’를 주제로 한 국민은행 김태곤 준법감시인의 초청 특강이 있었으며, 참가 기업인들간의 ‘벤처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과 ‘통합 협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 등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이뤄졌다.